

---

# 주요국 예산안-독일

---

2023. 1.

## 연구책임자

오종현 재정지출분석센터장

송경호 재정제도분석팀장

## 공동연구원

박지혜 선임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1. 경제·재정전망 .....	1
가. 경제전망 .....	1
나. 재정전망 .....	4
2. 예산기조 .....	6
3. 예산안 주요 내용 .....	8
가. 재정수입 .....	8
나. 재정지출 .....	11
4. 주요 정책 .....	17
가. 재정건전화 계획 .....	17
나. 에너지 위기 대응 .....	23
다. 특별기금 .....	29
라. 주요 투자 정책 .....	31

## 독일 개황

□ FY2023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출처 : 연방 재무부, 경제에너지부

Finanzplan des Bundes 2022 bis 2026, 2022.8

Finanzbericht 2023, 2022.8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 2022.4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3, 2022.10

Frühjahrsprojektion 2022, 20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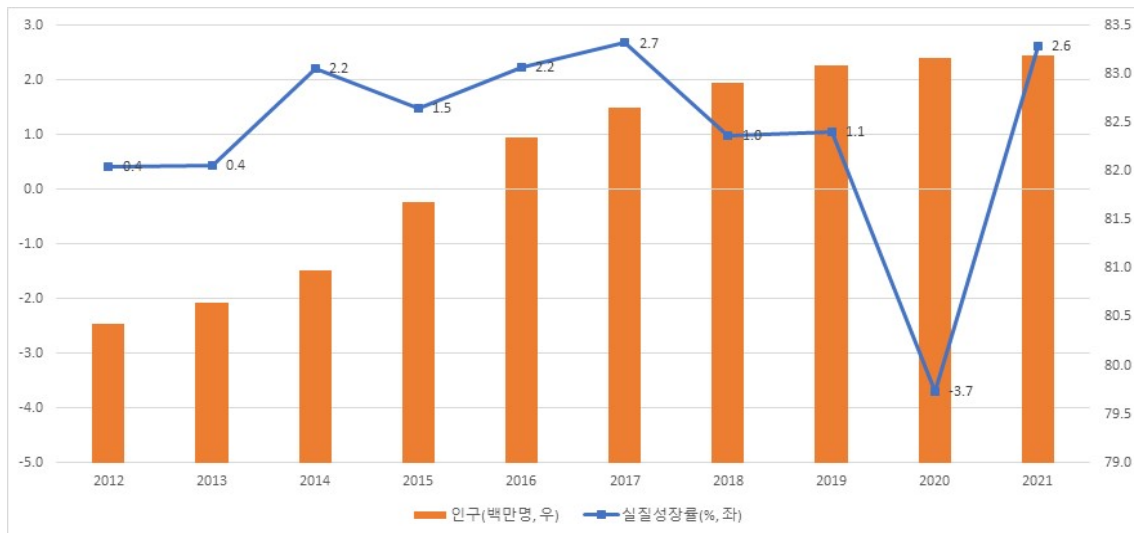
Herbstprojektion 2022, 2022.10

□ 환율: 1유로 = 약 1,352.79원(2021년도 평균)<sup>1)</sup>

□ 경제규모 : 2021년 경상 GDP 4조2,599억달러(2021년 기준, OECD)<sup>2)</sup>

□ 인구 : 8,319.6만명(2021년 기준, OECD)

□ GDP 및 인구 추이 :



자료 : OECD Stat, National Accounts (<https://stats.oecd.org/>, 추출일: 2022.12.22.)

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https://ecos.bok.or.kr/>, 추출일: 2022.12.22.)

2) OECD Stat, National Accounts, GDP CXC: Current prices, current exchange rates 기준 (<https://stats.oecd.org/>, 추출일: 2022.12.22.)

<요 약>

□ 경제·재정전망

- (경제성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 모멘텀이 제한된 상황에서 독일의 GDP 성장률은 2022년 2.2%, 2023년 2.5%로 전망
- (재정전망) 20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3.5%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점차 개선되어 2026년까지 1.0%로 낮아질 전망이며,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도 신규차입 감소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66.75%에서 2026년에는 65.2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예산기조

- 독일 경제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로 되돌릴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투자에 많은 지원
  -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지출을 계속 하면서 동시에 기후 보호, 교통, 디지털화, 혁신, 교육 및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예산안

- (재정지출) 2023년 재정지출은 4,452억유로로 전년 대비 10.2% 감소하고, 재정지출은 2024년까지 감소한 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조세수입) 2023년 재정지출 중 약 81%인 약 3,623억유로를 조세수입으로 조달할 전망
- (신규차입) 2023년부터 다시 부채규정 기준 한도를 준수함으로써 신규차입 규모는 2022년 1,389억유로에 비하여 1,217억유로 감소한 172억으로 계획

□ 주요재정정책

- (에너지 위기 대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하여 약 3,000억유로 규모의 구호패키지를 실행
- (주요 투자정책) 2023년 연방 정부의 투자지출은 약 584억유로이고, 교통 인프라, 주택 및 건설, 교육, 연구, 디지털화, 기후보호, 국제협력 등에 투자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2022.1.14.	FY2021 잠정결산 발표
2022.1.26.	2022년 연간경제보고서 발표
2022.3.16	2022년 2차 예산안 및 2023~2026 중기재정계획 주요 수치 발표
2022.4.27.	2022년 2차 예산안 추가 예산 승인
2022.4.27.	독일 안정화프로그램 2022 채택
2022.4.27.	2022년 봄 경제전망 발표
2022.5.12.	제162차 세수추계 결과 발표
2022.7.1.	2023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채택
2022.9.29.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2022 가을 공동경제전망 발표
2022.10.12.	2022년 가을 경제전망 발표
2022.10.17.	2023년 재정계획안(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3) 발표
2022.12.16.	연방은행 2023~2025년 경제전망 발표
2022.12.16.	제26차 안정화위원회 회의 개최

## 1. 경제·재정전망

### 가. 경제전망

- 2022년 독일 경제성장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 모멘텀이 제한된 상황에서 2.2%로 전망
  - (성장률) 2021년 독일 실질 GDP는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으나 연방정부의 봄 경제전망<sup>3)</sup>에서 2022년 2.2%, 2023년 2.5%의 전년 대비 낮아진 경제성장률을 전망
  - (소비)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영향의 감소와 저축률의 정상화로 인하여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소비가 위축되어 2022년에는 3.7% 증가할 전망
    - 2021년 3.1% 증가하였던 정부소비는 2022년에는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총고정자본형성) 원자재 부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높은 에너지 가격 및 생산자 가격이 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정부의 투자 개발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2022년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정부의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과 기후전환기금의 민간 부문 보조금으로 인하여 설비 분야는 2022년 6.0%의 성장률이 예상됨
    - 2023년에 설비(9.6%)와 건설(2.2%) 모두 큰 폭으로 성장하여 총고정자본형성은 4.6%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수출·수입) 해외여행의 증가 및 군수품 수입로 인하여 수입은 5.5%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 내 공급 병목 현상이 해결되면 수출도 전년 대비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3년에는 수출(5.9%)이 수입(5.3%)보다 더 강하게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GDP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5월호』 참고

- (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하여 에너지 가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봄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2년에는 6.1%, 2023년에는 2.8%로 예상
- (위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의 계속되는 혼란과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향후 독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격 압력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음

<표 1-1> 2022년 봄 경제전망 주요수치

(단위: %)

	2021	2022	2023
실질 GDP 성장률	2.9	2.2	2.5
가계최종소비	0.1	3.7	2.3
정부최종소비	3.1	-0.1	-0.8
총고정자본형성	1.5	3.4	4.6
설비	3.4	6.0	9.6
건설	0.7	1.7	2.2
내수	2.2	2.7	2.1
수출증가율	9.9	4.2	5.9
수입증가율	9.3	5.5	5.3
소비자물가상승률	3.1	6.1	2.8

자료: 연방 경제기후부, *Frühjahrsprojektion 2022*, 2022.4.27.

<참고 1> 2022년 가을 경제전망(Herbstprojektion)

- 2022년 실질 GDP 성장률은 1.4%, 2023년에는 -0.4%로 예상되며 2024년부터 경제가 회복되어 2.3%로 전망
  - 봄 경제전망에서는 2022년 2.2%, 2023년 2.5%로 전망하였으나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과 이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산업 생산에 큰 타격을 입고 민간 소비에도 영향을 미쳐 가을 경제전망에서 하향 조정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2년 8.0%, 2023년 7.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국민과 기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구호 조치를 결정하였으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물가상승률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전망

2022년 가을 경제전망 주요수치

(단위: %)

	2021	2022	2023	2024
실질 GDP 성장률	2.6	1.4	-0.4	2.3
명목 GDP 성장률	5.8	7.0	5.3	4.7
가계최종소비	0.4	4.3	-0.9	2.4
정부최종소비	3.7	2.8	-0.8	0.8
총고정자본형성	1.2	-0.6	0.3	3.9
설비	3.5	1.0	3.6	5.8
건설	0.0	-2.2	-2.1	2.9
내수	1.9	3.1	-0.5	2.4
수출증가율	9.7	1.4	2.0	3.5
수입증가율	9.0	5.4	1.9	3.6
소비자물가지수	3.1	8.0	7.0	2.4
실업률(연방고용청 기준)	5.7	5.2	5.4	5.2

주: 2021년 잠정치, 2022-2024년 전망치.

자료: 연방 경제에너지부, "wirtschaftliche-entwicklung",

<https://www.bmwk.de/Redaktion/DE/Artikel/Wirtschaft/Projektionen-der-Bundesregierung/projektionen-der-bundesregierung-herbst-2022.html>, 2022.10.12.

## 나. 재정전망

### □ 재정수지 전망

- (지출) 2023년 재정지출은 4,452억유로로 전년 대비 10.2% 감소한 수치, 재정지출은 2024년까지 감소한 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2024년에 4,237억유로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5년에 4,286억유로, 2026년에 4,363억유로로 증가할 전망
- (조세수입) 2023년 조세수입은 3,623억유로로 전망되고 중기재정계획 기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6년에는 4,023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전망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과 같은 불확실성의 위험이 남아있음
- (신규차입) 2023년부터 다시 부채규정 기준 한도<sup>4)</sup>를 준수함으로써 신규차입 규모는 2022년 1,389억유로에 비하여 1,217억유로 감소한 172억으로 계획
  - 2023년 연방 예산안부터 2026년까지 중기재정계획 기간 동안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 회복력을 강화할 계획
- (일반정부 재정수지) 2023년 재정계획안(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3)에 따르면 20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의 3.7% 대비 나아진 3.5%로 전망되고, 2022년 안정화프로그램(2022.4)이 예상한 3.75%보다 개선된 수치
  - 2023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안정화프로그램에서 전망한 것과 같이 2%로 나타남
- (구조적 재정수지)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 3%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6년에는 1%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24~2026년 기간 동안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0.5%p 줄이는 MTO 규정 요

4) 독일 기본법 109조에 따라 연방 및 주정부는 차입 수입 없이 예산의 균형을 이뤄야 하며, 기본법 115조는 신규 차입을 명목 GDP의 최대 0.35%로 제한하고 있음

건을 평균적으로 준수할 계획

□ 정부부채 전망

- 2022년 GDP 대비 정부부채(마스트리히트 기준)는 67.75%이고, 2023년에는 66.75%로 예상되며 꾸준히 감소하여 2026년에는 65.2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신규차입의 감소와 명목 GDP의 성장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

<표 1-2> 2023 예산안 및 2024-2026 중기재정계획 상 지출·수입

(단위: 억유로, %)

	2022	2023	중기재정계획		
			2024	2025	2026
<b>재정지출</b>	<b>4,958</b>	<b>4,452</b>	<b>4,237</b>	<b>4,286</b>	<b>4,363</b>
전년대비 증감률(%)	-10.9	-10.2	-4.8	1.2	1.8
투자	515	584	517	521	519
<b>재정수입</b>	<b>4,958</b>	<b>4,452</b>	<b>4,237</b>	<b>4,286</b>	<b>4,363</b>
조세수입	3,284	3,623	3,745	3,881	4,023
신규차입	1,389	172	123	128	138

자료: 연방 재무부, Finanzbericht 2023, p.12., 2022.8.

<표 1-3> 2021~2026 독일 중기재정계획 주요 지표 전망

(단위: GDP 대비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일반정부 재정수지	-3.7	-3.5	-2	-2	-1.5	-1
구조적 재정수지	-2.5	-3	-2.25	-2	-1.5	-1
국가부채	68.6	67.75	66.75	66	65.75	65.25

자료: 독일 연방정부,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3, 2022.10.17.

## 2. 예산기조

-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부채규정 기준 한도를 넘겨왔으나 2023년부터는 재정정책의 전환점으로서 부채 한도를 지키며 안정지향적인 재정정책으로 돌아갈 계획
  - 독일 경제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로 되돌릴 수 있는 미래 지향적 투자에 많은 지원
  -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지출을 계속 하면서 동시에 기후 보호, 교통, 디지털화, 혁신, 교육 및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
- 불확실성이 강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에 지원
  - (코로나19 대비) 경제기후부(BMWK)는 전염병 대비에 1억7,100만유로를 지출하고, 연방보건부(BMG)는 백신 조달과 전염병 대비 기금 조달을 위하여 약 22억유로를 지원
  -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및 영향 완화) 에너지 공급 확보를 위한 KfW 대출에 54억유로, 부유식 저장 및 재기화 장치 임대 2억7,400만유로, 연방군 특별기금에 1,000억유로, 에너지 위기에 따른 구호패키지에 300억유로 지원
  - (위기지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연방 외무부와 함께 50억 유로의 글로벌 위기 지원금 지원
- (기록적인 수준의 투자 확대) 독일 경제를 지속가능하고 기후 중립적이며 디지털화된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 기간(2024년~2026년) 동안 연간 약 520억유로 규모를 투자할 계획
  - 2023년에는 583억유로를 투자지출에 지원할 예정인데 이는 3월 예산안 주요 수치에서 결정된 510억유로에 IMF 신탁기금 63억과 건강보험기금 10억유로가 추가된 규모

- 이러한 투자지출의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9년 약 390유로)과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준

□ (사회적 연대 강화)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하여 2023년 2,000억유로 이상을 지출할 계획

○ 연금보험에 대한 지출은 2023년 1,124억유로에서 2026년 1,288억유로까지 증가할 것이며, 유아교육에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20억 유로를 지원하고, 사회적 주택에 대한 연방의 주 정부 재정지원도 25억유로로 크게 증가

□ (국제협력) 국방, 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 및 국제 기후 보호 분야에 기금을 제공하며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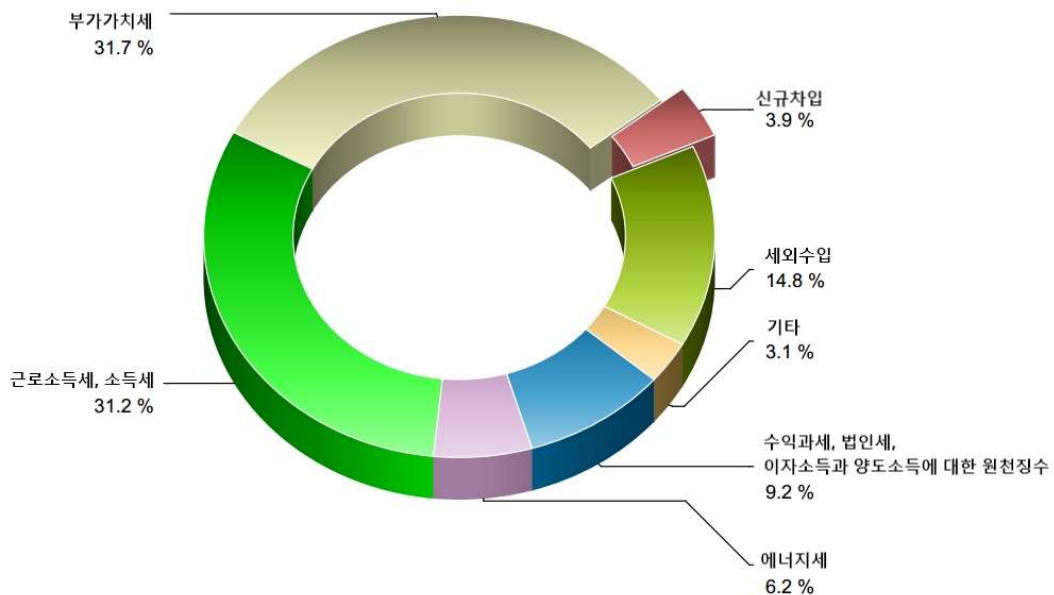
○ 국제 기후 및 생물 다양성 기금에 2023년에만 40억유로를 기여할 것이며, 세계 2위의 공여국으로서 개발 협력에 연간 220억유로 이상을 지출할 계획

### 3. 예산안 주요 내용

#### 가. 재정수입

- 2023년 연방정부 재정수입은 약 4,452억유로로 전망되고, 조세수입이 약 3,623억 유로로 가장 큰 비중인 약 8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조세수입) 2023년 조세수입은 전년대비 10.3% 증가한 3,623억유로로 전망되며 근로소득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증가가 두드러짐(<표 3-1> 참고)
  - (세외수입) 2023년 세외수입은 약 657억유로 규모이며, 보증 수입과 트럭 통행료, 주정부로부터의 환급금, 이자 수입 및 대출 상환금 등이 포함
  - (신규차입) 2022년 1,389억유로였던 신규차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172억유로 규모로 편성

[그림 3-1] 2023년 연방정부 재정수입 구조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3*, p.66, 2022.8.

<표 3-1> 2022~2026년 연방 조세수입 및 신규차입 계획

(단위 : 억유로)

항목	2022	2023	2024	2025	2026
근로소득세(Lohnsteuer)	1003	1072	1128	1178	1241
소득세(veranlagter Einkommensteuer)	298	316	336	355	372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지 않는 수익과세 (nicht veranlagten Steuern vom Ertrag)	161	158	166	168	170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Bundesanteil an der Abgeltungsteuer auf Zins- und Veräußerungserträge)	38	38	39	39	40
법인세(Körperschaftsteuer)	209	213	223	235	243
부가가치세(Steuern vom Umsatz)	1,373	1,468	1,511	1,555	1,595
영업세 이전금액(Gewerbesteuerumlage)	22	23	24	26	27
연방세(Bundessteuern) <sup>1)</sup>	1,006	1,029	1,038	1,055	1,070
EU기금(EU-Finanzierung)	-357	-357	-368	-383	-393
지방분권기금(Regionalisierungsmittel)	-97	-103	-99	-101	-103
보충교부금(Ergänzungszuweisungen)	-105	-108	-113	-117	-121
자동차세 손실보전금(Kompensation Kfz-Steuer)	-90	-90	-90	-90	-90
재정안정보조금(Konsolidierungshilfen)	-8	-8	-8	-8	-8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변화 및 현재 조세추세에 따른 조정분	-168	-29	-42	-30	-20
<b>총 조세수입(Steuereinnahmen)</b>	<b>3,284</b>	<b>3,623</b>	<b>3,745</b>	<b>3,881</b>	<b>4,023</b>
<b>신규차입(Nettokreditaufnahme)</b>	<b>1,389</b>	<b>172</b>	<b>123</b>	<b>128</b>	<b>138</b>

주: 1) 연방세는 세수가 연방정부에 귀속되는 세목으로 맥주세를 제외한 소비세 대부분(에너지, 전기, 담배, 스파클링 와인)과 자동차세(2009년 7월1일 이후 주정부에서 이전), 보험세 등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3, Tabelle 14, 16., 2022.7.1.일부발취

<참고 2> 연방재무부, 제163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sup>5)</sup> 결과<sup>6)</sup>

- 독일의 2022년 총 세입은 8,877억유로로 전년 대비 6.5% 증가한 수치이고, 2023년 총 세입은 9,373억유로로 전년대비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총 세입은 2027년까지 1조1,148억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2021년 8,332억유로를 기준으로 추정기간 동안 연평균 5%씩 성장한 수치

제163차 세수추계 결과<sup>1)</sup>

(단위: 억유로,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방정부	3,137 (10.8)	3,380 (7.8)	3,697 (9.4)	3,903 (5.6)	4,100 (5.0)	4,241 (3.4)	4,382 (3.3)
주정부	3,551 (12.3)	3,780 (6.5)	3,874 (2.5)	4,119 (6.3)	4,311 (4.6)	4,463 (3.5)	4,619 (3.5)
지방자치단체	1,262 (17.4)	1,324 (4.9)	1,398 (5.6)	1,478 (5.7)	1,563 (5.7)	1,626 (4.0)	1,684 (3.6)
EU <sup>2)</sup>	382 (16.5)	393 (2.8)	404 (2.8)	430 (6.3)	445 (3.6)	456 (2.4)	463 (1.5)
<b>총 세입</b>	<b>8,332 (12.6)</b>	<b>8,877 (6.5)</b>	<b>9,373 (5.6)</b>	<b>9,930 (5.6)</b>	<b>10,419 (4.9)</b>	<b>10,785 (3.5)</b>	<b>11,148 (3.4)</b>

주: 1. ( )는 전년대비 증감률이며, '22~'27년 해당수치는 추정치

2.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정분 등

출처: 연방 재무부, "Ergebnisse der 163 Steuerschätzung," Anlage 1,2, 2022.10.27. 참고하여 작성

5) 독일의 세수추계는 일 년에 두 차례(통상 5월, 11월) 발표하며, 세수추계위원회(Arbeitskreis .Steuerschätzungen)는 간사역할을 맡은 연방재무부를 비롯하여 연방 경제기후부, 5대경제연구소, 연방통계청, 연방은행, 거시경제 자문위원회, 주정부의 재무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국연합회가 참여. 1955년 예산안, 1968년 중기재정계획부터 세수추계결과를 연방정부에 전달하였고 연방 재무부는 이를 직접 공표함 (출처: 연방 재무부 홈페이지, "Working Party on Tax Revenue Estimates",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Topics/Taxation/Articles/working-party-on-tax-revenue-estimates.html>, 검색일자: 2022.11.23.)

6) 연방 재무부, "Ergebnisse der 163. Steuerschätzung," 2022.10.2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10/2022-10-27-ergebnisse-der-steuerschaetzung.html>, 검색일자: 2022.11.8.

## 나. 재정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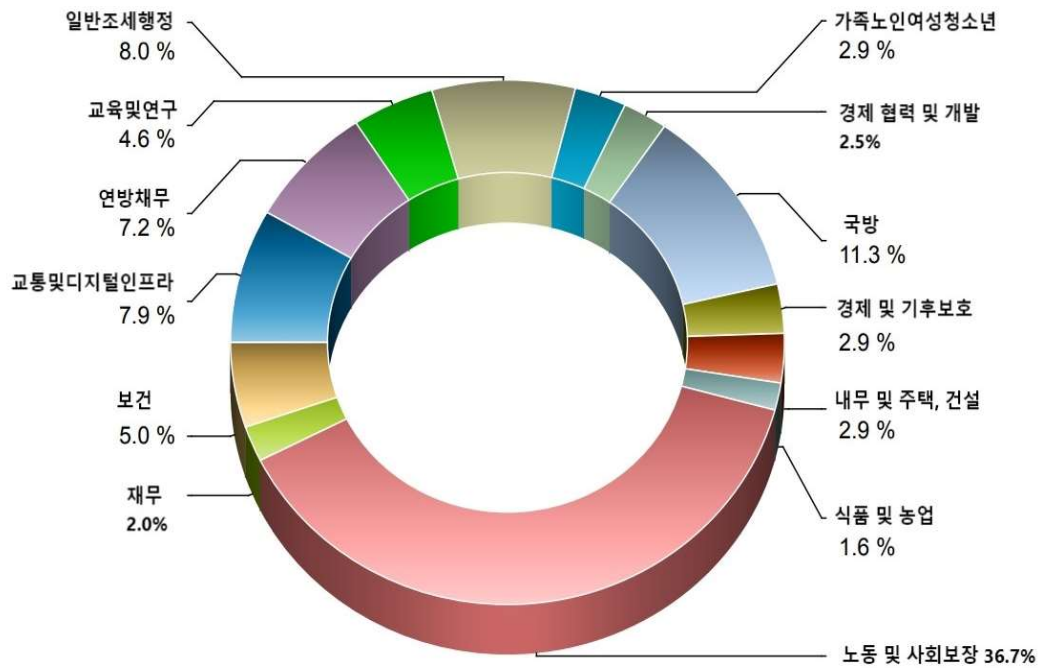
- (사회보장) 연방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장 지출은 2023년 2,067억유로로, 2022년 2,485억유로 대비 감소할 전망
    - 총지출에서 사회보장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6.4%로 하락한 후, 2026년 50.8%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
    - 2023년 연금보험 예산은 1,124억유로의 규모이고, 연금기여율<sup>7)</sup>은 2024년까지 18.6%를 유지하다가 2025년에는 19.0%, 2026년에는 19.8%까지 증가할 계획
    - 노동 분야에 대한 2023년 연방정부 지출 예산은 406억유로이고, 실업급여(SGB II) 213억유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거 및 난방비 지원에 100억유로, 구직자 관련 고용서비스 및 행정비용 부담에 92억5천만유로, 난민의 노동시장 편입 지원 3억1천만유로 등으로 구성
    - 2023년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의 예산은 129억유로로, 이 중 2023년 부모수당(Elterngeld)에 83억유로<sup>8)</sup>, 아동수당은 약 15억유로, 양육비 우선지원에 약 11억유로 지원
    - 연방정부는 장기요양보험에 2022년부터 연간 10억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기금에는 2017년부터 연간 145억유로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2023년 건강보호기금에 20억유로의 추가 보조금, 10억유로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할 계획
  - (국방) 2023년 국방부(BMVg) 예산은 재정계획 대비 약 27억6천만유로 증가한 약 501억유로로 편성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군 특별기금(Bundeswehr)이 1천억유로 규모로 조성
  - (경제·에너지) 2023년 경제에너지부(BMWK)의 예산은 약 130억5천만유로로 책정
- 7) 총입금 대비 기여액
- 8) 부모수당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약248억유로를 지원할 예정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의 대책에 대한 비용이 포함
  - 부유식 저장 및 재기화 장치의 임대 및 운영과 관련하여 2억 7,400만유로, 육상 LNG 터미널 운영에 1,060만 유로<sup>9)</sup>, 에너지 위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하여 10억유로의 예산 지원 등
-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하여 국가 수소 프로젝트인 H2Global에 35억유로를 추가 투입할 계획
-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주도 혁신프로그램인 ZIM 프로젝트에 7억유로, 중소기업 디지털화 전환 11억유로, 지역경제구조개선(GRW;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에 6억4,700만유로 지원
- (교통) 2023년 교통디지털인프라부(BMDV) 예산은 전년대비 10억유로(3.0%) 감액된 350억유로 배정되었고, 추가로 5억4천만유로의 통행료 수입이 전망
  - 연방 정부는 도로, 철도, 수로와 같은 전통적 교통수단 분야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은 약 186억 유로가 계획됨
  - 자전거 및 걷기와 같은 기후 친화적 교통수단에 4억유로, 광대역 통신망 인프라 확장에 12억유로 지원
- (주택 및 도시개발) 2023년 연방 주택도시개발및건설부(BMWSB) 예산은 약 50억 유로로 편성
  - 기후 친화적 사회주택 25억유로, 도시개발자금 7억9천만유로, 생애 첫 주택구입을 위한 유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Baukindergeld) 8억5,900만유로, 주택수당 6억9천만유로, 주택프리미엄 보조금 2억1,500만유로를 지원할 계획
- (교육 및 연구) 2023년 연방 교육연구부(BMBF) 예산은 약 206억유로로, 숙련노동자 및 대학교육 강화, 교육의 디지털화,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아동 및 학생들을 위한 조치, 아동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계획

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6월호』 「연방 정부, LNG 촉진법(LNG-Beschleunigungsgesetz) 시행(2022.6.1.)」 참고

- 연방교육지원법(BAföG)에 따른 지출은 2023년 약 26억유로, 업그레이드교육촉진법(Upgrading Training Promotion Act) 분야에 약 8억5,200만유로, 직업 훈련 우수성 이니셔티브(Exzellenzinitiative Berufliche Bildung)에 약 2억8,200만유로
  - 미래 전략 R&I 프로그램에 약 27억유로, 독일전환혁신기관(DATI: German Agency for Transfer and Innovation) 설립에 3억3,700만유로 투자
  -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제공 확대 35억유로, 유아교육의 활성화에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20억유로를 지원할 계획
- (환경) 2023년 연방 환경원자력안전및소비자보호부(BMUV)의 예산은 약 24억4천만 유로이며, 환경 및 자연보호, 원자력 안전, 기후변화 적응 및 소비자 보호에 초점
- 국가해양보호프로그램 2,200만유로, 해양쓰레기 오염방지기술 수출 지원 2,500만유로, 연방자연보호기금 1억1,850만유로, 종다양성보호프로그램 1,400만유로
  - 방사성 폐기물 최종 저장 프로젝트 7억2,900만유로,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 4억3,100만유로 지원
  -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조치를 위한 국제기후금융에 약 6억8,500만유로 편성하고, 2026년까지 총 34억유로를 지원할 계획
- (국제협력)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제협력과 관련된 지출은 약 224억유로
- 국제협력 지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제협력개발부(BMZ)의 예산은 111억규모
  - 2023년 연방 외무부(AA)의 전체 예산(64억유로) 중 인도적 지원 관련 지출은 20억유로로 높은 수준
    - 또한 독일 개발원조기금(Entwicklungsfinanzierung)에 약 36억유로 기여
  - 2021년 기준으로 독일은 국민 총소득 대비 0.74% 규모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비중이 훨씬 높은 수준이고, 절대금액으로 보아도 약 322억달러로 미국(약 422억달러)에 이은 2위를 기록

[그림 3-2] 2023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3*, p.17, 2022.8.

<표 3-2> 2023 예산안 주요 기능별 연방지출 전망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1 실적	2022 목표	2023 예산안	2024	2025	2026
사회보장	291,759	264,746	210,206	208,485	214,875	222,011
국방	41,180	44,160	43,578	43,335	43,147	43,077
식품·농업·건강	2,677	2,961	2,933	2,881	2,720	2,611
경제·에너지	6,923	16,587	26,334	14,172	12,467	11,191
교통	34,723	33,963	32,601	32,938	33,816	34,388
건설·도시개발	2,122	3,422	3,701	4,302	4,760	5,026
교육·과학·연구	24,105	28,112	29,265	30,418	26,827	26,306
문화	4,240	3,324	3,121	2,997	3,008	2,968
환경보호	4,756	2,739	3,002	3,098	3,108	3,074
스포츠	251	363	290	264	282	246
내무·이민	8,500	9,393	8,857	8,890	8,891	8,905
경제협력·개발	13,224	12,304	10,926	10,539	10,432	10,238
일반재무	13,727	26,420	40,090	35,638	38,239	40,442
특별기금	79,056	8,524	306	1,003	1,421	946

주: 2024~2026는 전망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3*, Tabelle 5., pp.17-18, 2022.8.

<표 3-3> 2023 예산안 부처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유로, %)

구분	2022 (A)	2023 정부안 (B)	증감률(%) [(B-A)/A]
대통령실	44.89	44.98	+0.2
연방하원	1,108.91	1,107.72	-0.1
연방상원	35.29	39.68	+12.4
총리실	3,861.18	3,668.22	-5.0
외무부	7,107.58	6,397.43	-10.0
내무부	14,986.39	12,761.72	-14.8
법무부	937.98	953.42	+1.6
재무부	8,826.14	9,508.62	+7.7
경제기후부	11,333.78	13,050.89	+15.2
식품농업부	7,104.58	7,175.72	+1.0
노동사회부	161,080.98	163,330.5	+1.4
교통및디지털인프라부	36,111.0	35,041.0	-3.0
국방부	50,404.83	50,104.88	-0.6
보건부	64,357.04	22,062.28	-65.7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및소비보호부	2,172.38	2,436.37	+12.2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12,599.96	12,880.55	+2.2
헌법재판소	35.91	40.47	+12.7
회계감사원	172.91	186.96	+8.1
정보보호및자유를위한연방위원회	43.24	45.7	+5.7
독립통제위원회	12.38	13.49	+9.0
경제협력개발부	12,349.89	11,080.0	-10.3
주택도시개발및건설부	4,962.55	5,010.04	+1.0
교육연구부	20,385.2	20,571.6	+0.9
연방채무	18,463.3	31,885.87	+72.7
일반조세행정	57,293.2	35,823.19	-37.5
재정지출	495,791.48	445,221.29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3, pp.89~90, 2022.8.

## 4. 주요 정책

### 가. 재정건전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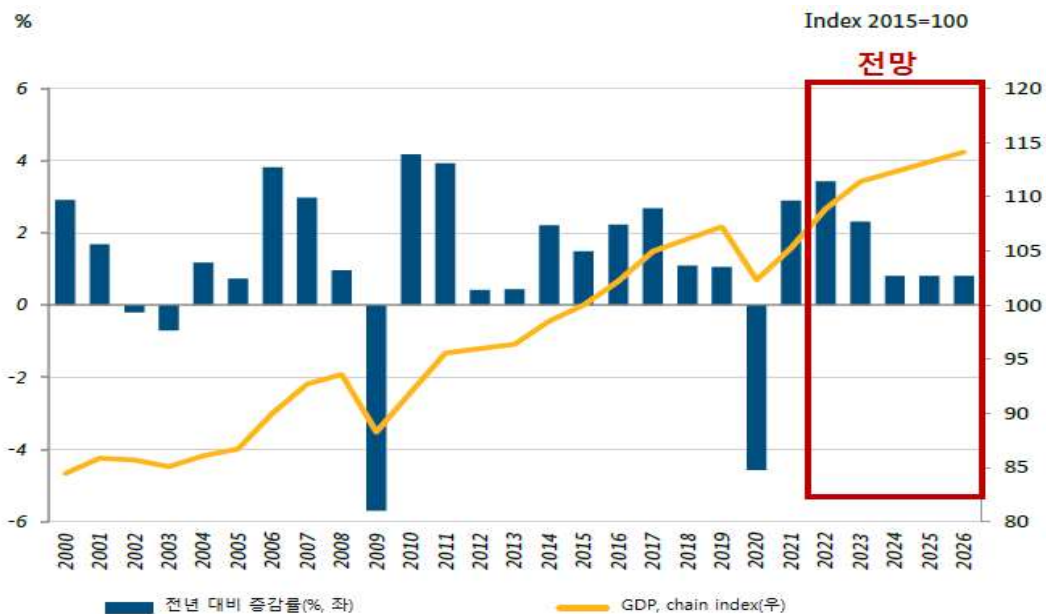
#### 1) 2022 안정화프로그램(Deutsche Stabilitätsprogramm 2022)<sup>10)</sup>

- 2022 안정화프로그램(Deutsche Stabilitätsprogramm 2022)에 따르면 2022년 독일 경제성장률은 3.6%,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3.75%로 전망
  - (경제전망) 독일의 2022년 실질 GDP 성장률은 3.6%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어 가면서 경제활동이 눈에 띄게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
    - 2022년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6.0% 증가하여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늘어난 투자로 총고정자본형성도 전년대비 2.6% 증가하며, 전 세계적인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수출은 5.5%, 수입은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2022년 안정화프로그램이 작성된 시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독일 경제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불확실
    - 2023년 경제성장률은 2.3%로 전망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을 0.8%로 가정
  - (재정전망) 독일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 GDP 대비 3.75%, 2023년은 2%로 전망되며 2026년까지 일반정부 재정적자를 GDP 1~2% 수준으로 줄여갈 계획
  - (정부부채) 2022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마스트리히트 기준)은 66.7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이는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신규차입 수준이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10) 연방 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 Solide Finanzen in einer herausfordernden Zeit,” 2022.4.2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4/2022-04-27-deutsches-stabilitaetsprogramm-2022.html>, 검색일자: 2022.5.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정화프로그램 2022』, 2022.7. 참고

- 2026년에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64.5%로 2022년보다 더 낮아질 전망
- (재정정책 방향) 재정적자 감소와 경제성장 촉진을 목표로 설정
  - 지난 3년간 부채 수준이 예외적으로 높았으나 향후 중기 전망 기간 동안은 재정을 안정화하도록 노력하고자 함
  - 독일 경제의 부흥, 기후 친화적 성장, 디지털화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에 투자

[그림 4-1] 2022 안정화프로그램 실질 GDP 추이 및 전망



출처: 연방 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 Abbildung 1, p.14, 2022.4.27.

- 독일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는 제25차 회의(2022.4.28.)<sup>11)</sup>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적인 영향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공공 재정은 중단기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부담에 직면해 있으며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
  -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 2022년 구조적 재정적자는 GDP 대비 3.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2026년까지

11) 연방 재무부, “25. Sitzung des Stabilitätsrates am 28. April 2022,” 2022.4.28.,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4/2022-04-28-stabilitaetsrat-25-sitzung.html>, 검색일자: 2022.5.3.

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유럽의 중기재정목표(MTO)인 GDP의 0.5%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를 다시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독일 연방 및 주 정부는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라 2023년부터 공공부채를 줄이고, 양질의 공공 투자를 위한 점진적인 재정 조정을 계획
-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재정 전망이 매우 높은 불확실성에 처해 있으므로 연간 부채 감소 정도를 늘리는 조치는 필요 없다는 의견

<표 4-1> 2021-2026년 독일 경제·재정전망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경제전망 (단위: %)						
실질 GDP 성장률	2.9	3.6	2.3	0.8	0.8	0.8
민간소비	0.1	6.0	2.6	0.8	0.8	0.8
정부소비	3.1	0.0	-0.2	0.1	0.1	0.1
총고정자본형성	1.5	2.6	4.3	2.1	2.1	2.1
수출	9.9	5.5	4.0	3.1	3.1	3.1
수입	9.3	6.3	4.3	3.5	3.5	3.5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총수입	47.8	45.5	46	46.25	47	47.25
총지출	51.5	49.25	47.75	48.0	47.75	47.75
일반정부 재정수지	-3.7	-3.75	-2	-1.75	-	-0.5
구조적 재정수지	-2.1	-3.5	-2.25	-2	-	-0.5
총채무	69.3	66.75	65.75	65.75	65	64.5

자료: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 Tabelle 11, p.54, 2022.4.27. 발취 및 재작성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 Tabelle 1,2., 2022.4.27.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 Tabelle 6,15, p.57, 2022.4.27. 발취 및 재작성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 Tabelle 19, p.61, 2022.4.27.

- 안정화위원회 제26차 회의(2022.12.16.)에서 자문위원회는 정부 핵심예산에는 부채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만 특별기금과 같은 우회적 방법을 통하여 지나치게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어 재정에 위험요소가 존재함을 지적<sup>12)13)</sup>

12) 연방 재무부, “26. Sitzung des Stabilitätsrates am 16. Dezember 2022,” 2022.12.1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12/2022-12-16-stabilitaetsrat-26-sitzung.html>, 검색일자: 2022.12.19.

- (경제전망) 2022년 경제성장률은 1.4%, 2023년에는 -0.4%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2.3%로 회복할 것
  -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겨울철 반년 동안 경제활동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에너지 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생산 손실은 훨씬 클 것이고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
- (재정전망) 안정화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3.5%로 전망되고, 이는 지난 4월 전망에 비하여 낮아진 수치
  - 반면, 2023년 재정적자는 2.5%p 증가한 4.5%로 예상되며 중기재정계획 기간 동안에는 1.5~2%사이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위기 시기인 2021년 68.6%까지 올랐고 2022년 66.75%로 소폭 하락한 뒤 2023년 다시 70%까지 오를 전망이고,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26년에는 67.25% 수준으로 예상
  - 구조적 재정적자는 2022~2026년까지 전체 연도에서 중기재정목표(MTO)인 GDP 대비 0.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GDP 대비 2.5%로 전년도 대비 하락하지만 2023년 다시 3.25%로 크게 증가하고 2024년 2%, 2025년과 2026년에 1.5%까지 하락할 전망
  -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하여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

<표 4-2> 안정화위원회 26차 회의 재정전망(202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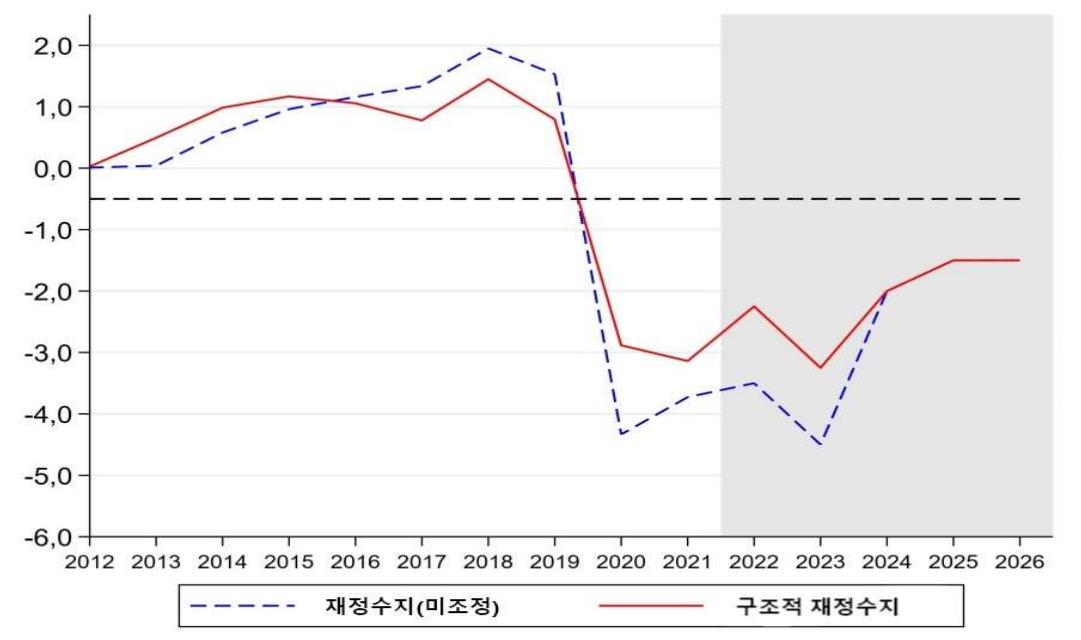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일반정부 재정수지	-3.7	-3.5	-4.5	-2.0	-1.5	-1.5
구조적 재정수지	-3.0	-2.5	-3.25	-2.0	-1.5	-1.5
총 부채	68.6	66.75	70	68.25	67.5	67.25

자료: 안정화위원회, "Stellungnahme des Beirats," Übersicht 3,5,6, 2022.12..9. 발췌 및 재작성

13) 안정화위원회, "Pressemitteilung zur Stellungnahme," 2022.12.1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12/2022-12-16-stabilitaetsrat-26-sitzung-stellungnahme-beirat.pdf?\\_\\_blob=publicationFile&v=2](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12/2022-12-16-stabilitaetsrat-26-sitzung-stellungnahme-beirat.pdf?__blob=publicationFile&v=2), 검색일자: 2022.12.19.

[그림 4-2] 안정화위원회 26차 회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전망(2022.12.)



자료: 안정화위원회, "Stellungnahme des Beirats," p.15, Abbildung 1, 2022.12..9. 인용

## 2) 2023 재정계획안(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3)<sup>14)</sup>

\* EU 규정에 따라 유로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지역 국가들은 매년 EU집행위원회에 내년도 재정계획안(Draft budgetary plan)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sup>15)</sup> 독일은 7월 발표한 2023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을 현재 재정상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여 제출

□ (재정수지) 20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의 3.7% 대비 나아진 3.5%로 전망되고, 이는 2022년 안정화프로그램<sup>16)</sup>에서 예상한 3.75%보다 개선된 수치

○ 세입이 2022년 안정화프로그램에서 예상한 GDP의 45.5%보다 더 증가한 46.5%로 예상되고, 반면 지출은 GDP의 49.25%에서 50%로 비교적 덜 증가했기 때문

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10월호』 「연방 재무부, 2023년 재정계획안(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3) 발표(2022.10.17.)」 참고

15) European Commission, "Draft budgetary plans,"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economic-and-fiscal-policy-coordination/eu-economic-governance-monitoring-prevention-correction/stability-and-growth-pact/annual-draft-budgetary-plans-dbps-euro-area-countries/draft-budgetary-plans-2022\\_en](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economic-and-fiscal-policy-coordination/eu-economic-governance-monitoring-prevention-correction/stability-and-growth-pact/annual-draft-budgetary-plans-dbps-euro-area-countries/draft-budgetary-plans-2022_en), 검색일자: 2022.10.25.

1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5월호』 「연방 정부,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2022(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 채택(2022.4.27.)」 참고

- 2023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안정화프로그램에서 전망한 것과 같이 2%로 나타남
- (중기재정목표: MTO)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 3%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6년에는 1%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24~2026년 기간 동안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0.5%p 줄이는 벤치마크 요건을 평균적으로 준수할 계획
- (국가채무) 2022년 GDP 대비 국가채무(마스트리히트 기준)는 67.75%이고, 2023년에는 66.75%로 예상되며 꾸준히 감소하여 2026년에는 65.2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신규차입의 감소와 명목 GDP의 성장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

<표 4-3> 2023 재정계획안 2021~2026 주요 지표

	(단위: GDP 대비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일반정부 재정수지	-3.7	-3.5	-2	-2	-1.5	-1
구조적 재정수지	-2.5	-3	-2.25	-2	-1.5	-1
국가채무	68.6	67.75	66.75	66	65.75	65.25

주 1: 2022.4월 자료는 안정화프로그램 2022(Stabilitätsprogramm 2022) 기준

2: 2021.10월 전망 자료는 2022.9.28.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독일 연방정부,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3*, 2022.10.17.

## 나. 에너지 위기 대응<sup>17)</sup>

### 1) 제1차 구호패키지(2022.2.23.)

-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연정위원회는 ‘우리나라를 위한 10가지 구호 조치(10 Entlastungsschritte für unser Land)’ 라는 광범위한 구호 조치에 합의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sup>18)</sup>
  - 2022년 7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 부담금(EEG-Umlage)<sup>19)</sup> 폐지
  - 난방비 보조금: 주거급여 수급자에 270유로 지원(2인 가구의 경우 350유로, 추가 1인당 70유로 증가), 직업훈련수당 수급자 및 학생들에게는 균일하게 230유로 지급
  -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 관련 지출 정액 공제가 1,200유로로 늘어남
  - 연간 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9,983유로에서 10,347유로로 인상
  - 장거리 통근자(21km 이상)의 거리 공제<sup>20)</sup>를 38ct로 인상

### 2) 제2차 구호패키지(2022.3.23.)

- 에너지 시장이 크게 악화되고 국민 및 기업들에게 가격 상승이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연정위원회는 높은 에너지 요금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 발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2022.3.24.)<sup>21)</sup>

17) 연방 재무부 홈페이지, “Entlastungen,”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Web/DE/Themen/Schlaglichter/Entlastungen/entlastungen.html>, 검색일자: 2022.12.26.

18) 연방 재무부, “10 Entlastungsschritte für unser Land,” 2022.2.2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Oeffentliche-Finzen/10-entlastungsschritte-fuer-unser-land.pdf?\\_\\_blob=publicationFile&v=3](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Oeffentliche-Finzen/10-entlastungsschritte-fuer-unser-land.pdf?__blob=publicationFile&v=3), 검색일자: 2022.3.14.

19)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전반에 사용

20)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20km 이하일 경우에는 1km당 30ct를 공제하고, 21km부터는 1km당 38ct를 공제

21) 연방 재무부, 2022.3.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Entlastungen/massnahmenpaket-bund-hohe-energiekosten.html>, 검색일자: 2022.4.12.

- (에너지세 감면) 2022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휘발유는 리터당 29.55센트, 경유는 리터당 14.04센트 인하
-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300유로에 이르는 일회성 보조금 지급
- 자녀가 있는 가구에 아동 1인당 100유로씩 추가 지급
-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200유로의 일회성 보너스 지급
-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에게 100유로의 일회성 지원금 지급
- 월 9유로의 대중교통 티켓 발행

### 3) 제3차 구호패키지(2022.9.3.)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650억유로 규모의 제3차 구호 패키지를 발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sup>22)23)24)25)</sup>
  - (연금기여금 전액 공제) 연금기여금의 세금 감면 제도를 예정보다 2년 앞당긴 2023년부터 실시하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
    - 이를 통해 2023년에는 약 32억유로, 2024년에는 약 18억유로를 절약
  - (소득 관련 지출공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관련 지출 정액공제가 1,230

22) 연방 재무부, "Schnelle und spürbare Entlastungen in Milliardenhöhe", 2022.9.1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Entlastungen/schnelle-spuerbare-entlastungen.html>, 검색일자: 2022.9.16.

23) 연방 재무부, "Wichtige Unterstützung: das Entlastungspaket III", 2022.9.2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Monatsberichte/2022/09/Inhalte/Kapitel-2b-Schlaglicht/2b-drittes-entlastungspaket.html>, 검색일자: 2022.9.26.

24) 연방 재무부, "Ergebnis des Koalitionsausschusses vom 3. September 2022", 2022.9.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chlaglichter/Entlastungen/ergebnispapier-des-koalitionsausschusses.pdf?\\_\\_blob=publicationFile&v=4](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chlaglichter/Entlastungen/ergebnispapier-des-koalitionsausschusses.pdf?__blob=publicationFile&v=4), 검색일자: 2022.9.16.

25) 연방 정부, "Deutschland steht zusammen", 2022.9.14.,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entlastungen-im-ueberblick>, 검색일자: 2022.9.16.

유로로 증가

- (자본수익공제액 인상) 자본수익공제액이 801유로에서 1,000유로로 증가
- (재택근무 소득공제 연장) 재택근무 소득공제가 무기한 연장되며 2023년부터는 연간 최대 1,000유로(현행 600유로)까지 청구 가능
- (최대 3,000유로 면제) 회사가 직원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최대 3,000유로까지 면제
- (한부모 가정에 대한 세금 공제 증가) 2023년 1월 1일부터 4,260유로로 증가
- (태양광 시스템 개발 장려) 태양광 시스템 공급 및 설치에 대한 판매세를 19%에서 면제, 일부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전기 및 에너지 세금 감면(Spitzenausgleich)) 에너지 집약적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2023년 말까지 1년 연장되어 9,000개의 기업에 약 17억유로 규모 지원

#### 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결과에 대응하는 경제적 보호막(2022.9.29.)

- 연방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여 가정과 기업에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가격 상승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 (전기에너지 가격 상한제) 2023년 3월부터 도입되고, 1월부터 소급 적용
    - (가정 및 중소기업) 연간 소비 전력이 3만kWh 미만인 가정과 중소기업에 전년도 소비량의 80%에 해당하는 기준량의 가격을 Kwh당 40센트로 할인 적용
    - (산업계 대규모 소비자) 연간 소비 전력이 3만kWh 이상인 기업의 경우, 2021년도 소비량의 70%에 해당하는 기준량을 kWh당 13센트로 할인하여 공급
  - (가스 및 열에너지 가격 상한제) 12월 일회성 긴급지원에 이어 1월부터 가스 및 열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소급 적용
    - (가정 및 중소기업) 전년도 연간 소비량의 80%까지 천연가스는 kWh당 12센트, 열에너지는 kWh당 9.5센트의 할인 가격을 적용

- (산업계 대규모 소비자) 2021년 연간 소비량의 70%를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kWh당 7센트로 할인하여 적용하고, 열에너지는 kWh당 7.5센트로 할인
- (병원 및 요양시설) 기업과 같은 조건이 적용되고, 추가로 80억유로의 특별원조기금 투입

□ 경제안정화기금(WSF: Wirtschaftsstabilisierungsfonds) 재활성화 및 재편성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3월 도입(2022년 6월 만료)했던 경제안정화기금을 재활성화 및 재편성하여 사용할 계획
- 연방정부는 2024년까지 2,000억유로를 제공하여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계획
-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2,000억 규모의 차입을 승인할 예정

□ EU 에너지 위기 기여금(EU-Energiekrisenbeitrag eingeführt) 도입<sup>26)</sup>

- 지난 9월 EU 집행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초과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 가스, 석탄 및 정유 산업 기업에 대하여 임시 초과 이윤에 대한 임시 연대 기여(solidarity contribution)를 제안<sup>27)</sup>
- 연방 정부는 EU 집행위의 요구 사항을 2022년 세법(Jahressteuergesetz 2022)에 포함 시켰으며 연방 의회는 이를 승인
  - 2018~2021년 평균 이익의 20%를 초과한 석유, 석탄, 가스, 정유 등의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초과이익 33%(EU 규정의 최소 비율)를 2022년, 2023년 2년간 징수
  - 연방 정부는 이러한 EU 에너지 위기 기여금(초과이윤세)으로 인하여 2022~2023년 2년 동안 10~30억유로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 천연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sup>28)</sup>

26) 연방 정부, "Solidaritätsbeitrag für fossile Energieunternehmen," 2022.12.1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ervice/gesetzesvorhaben/eu-energiekrisenbeitrag-2145638>, 검색일자: 2022.12.20.

2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9월호』 「EU 집행위,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긴급시장개입 제안(2022.9.14.)」 참고

- 연방 정부는 에너지 비용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  
고자 천연가스 판매세를 19%에서 7%로 일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을 발표
- 140억유로의 세입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지만 가스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 전  
체의 부담을 덜게 됨
- 기간은 가스 부담금 시행기간과 같음 (2022년 10월 1일 ~ 2024년 3월 31일)

#### 5)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 패키지 (2022.4.8.)

- 연방 재무부 및 연방 경제기후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처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
- (단기 유동성 지원) 70억 유로 규모의 독일개발은행(KfW)의 신용프로그램에 대하  
여 저금리 혹은 무보증으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  
미 도입되었던 연방 및 주 정부의 보증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장하여 계속
- (보증 프로그램) 운용자금 및 투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2022년 말까지 보  
증은행과 연방정부의 대규모 보증 프로그램을 확대
-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재정  
적 부담이 큰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
  - 이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며 기업의 비용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단일형(targeted) 혹은 복합형(hybrid) 자본 지원)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크로스 섹터 대기업을 위한 자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 (유동성 위기 상황의 에너지 기업 지원) 에너지 판매 기업의 마진콜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금융 프로그램 지원

---

28) 연방 정부, "Mehrwertsteuer auf Gas wird gesenkt", 2022.8.18.,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gasumlage-mehrwertsteuer-2075248>,  
검색일자: 2022.8.25.

## 6) 인플레이션 보상법(2022.11.10.)<sup>29)</sup>

- 정부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보상법을 제정하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 인상으로 과표구간이 높아져 더 많은 소득세를 내는 것을 방지
    -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표준 구간의 연간 소득 하한선(기본 공제액)을 2022년 9,984유로에서 2023년 10,908유로, 2024년에는 11,604유로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
    -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연간 소득 하한선도 2022년 58,597유로에서 2023년 62,810유로, 2024년 66,761유로로 인상할 계획
  - (가족 지원) 소득세 자녀공제액(Kinderfreibetrag)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금액 기준 2022년 8,548유로, 2023년 8,952유로, 2024년 9,312유로까지 소득세를 공제할 계획
    - 아동수당(Kindergeld)도 2023년부터 1월 1일부터 아동 한 명당 매달 250유로씩 지급할 계획
  - (기본공제액 인상) 연대세가 부분폐지 되어서 기본공제액이 기존 16,956유로에서 18,130유로로, 부부가 합산할 경우 기존 33,912유로에서 36,260유로로 인상

---

29) 연방 재무부, "Belastungen durch die kalte Progression vermeiden," 2022.10.11.,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Entlastungen/inflationsausgleichsgesetz.html>, 검색일자: 2022.12.26.

## 다. 특별기금

### 1) 기후변화기금(Klima- und Transformationsfonds)

- 2022년 7월 22일부터 에너지기후기금(EKF)을 기후변화기금(KTF)으로 전환<sup>30)</sup>
  - 기후변화기금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보호를 위한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 특별기금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 공급을 촉진하고, 기후를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자금을 제공
    - 건축부문 연방자금 지원, 수소경제 발전, E-모빌리티 확대, 재생가능 에너지 확장 및 에너지 효율성 촉진에 초점
    -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부담금(EEG-Umlage)은 전액 기금에서 보장될 것이며 2026년까지 총 355억유로 이상 규모로 예상
  - (수입) 2023년 KTF는 연방정부 지원금 없이 자체 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
    - 약 195억유로의 수입과 약 60억 유로의 글로벌 추가 수익, 준비금 등
  - (지출) 2023년 프로그램 지출은 2022년 대비 74억유로 증가한 약 354억유로
    - 건축부문 연방자금 지원(BEG) 169억유로, 충전 인프라 확장을 포함한 E-모빌리티 추가 투자 56억유로, 탈탄소화(22억유로)를 포함한 수소경제 발전 40억 유로, 에너지 집약적 기업 구호 26억유로 등에 지출할 계획

---

30) 기후변화기금(KTF)으로의 명칭 변경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특별기금이 “연방 기후보호법에 따라 기후보호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출”에 사용 목적이 있도록 그 내용을 수정함 (Das Parlament, “Neuer Name, neue Ziele”, 2022.5.16., [https://www.das-parlament.de/2022/20/wirtschaft\\_und\\_finanzen/895298-895298](https://www.das-parlament.de/2022/20/wirtschaft_und_finanzen/895298-895298), 검색일자: 2022.8.29.)

<표 4-4> 2022~2026년 에너지·기후기금 계획

(단위: 십억유로)

	2022	2023	2024	2025	2026
수입	106.819	104.309	91.302	65.97	45.443
탄소배출권 수입	6.893	8.755	7.555	7.227	7.087
연료배출거래 수입	8.670	10.714	13.293	15.683	17.856
연방정부 지원금	5.846	0	0	0	0
글로벌 추가 수익	0	5.951	1.5	1.5	1.5
준비금	85.41	78.888	68.953	41.56	19.0
지출					
프로그램 지출	27.931	35.355	49.742	46.97	45.443
준비금	78.888	68.953	41.56	19.0	0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3*, pp.51~52, 2022.8.

## 2) 연방군 특별기금(Bundeswehr)<sup>31)32)</sup>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 안보의 위기 상황에서 독일 연방군에 필요한 장비를 더 빨리 조달하고, 동맹 및 국방력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조치에 더 많이 투자하기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립
  - 기본법 제87a조를 수정하여 특별기금 설립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
  - 정부는 최대 1,000억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자체 신용승인 방식으로 설립
    - 이러한 일회성 신용 승인은 기본법의 부채 규정의 한도에서 면제
- 2023년 예산안 기준 약 85억유로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음

31) 연방 재무부, "Sondervermögen Bundeswehr: Investitionen in unsere Freiheit," 2022.3.1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3/2022-03-16-sondervermoegen-bundeswehr.html>, 검색일자: 2022.3.17.

32) 연방 정부, "100 Milliarden Euro für mehr Sicherheit," 2022.3.1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sondervermoegen-bundeswehr-2016560>, 검색일자: 2022.3.17.

## 라. 주요 투자 정책

- 2023년 연방 정부의 투자지출은 약 584억유로로 전년도 목표인 515억유로를 초과하였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재정계획 기간 동안 투자지출은 약 520억유로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2023년 투자지출이 일시적으로 높게 증가한 이유는 63억유로 규모의 IMF RST(IMF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 대출과 10억유로 규모의 법정건강보험(GKV)에 대한 건강기금대출이 포함되었기 때문
  - 투자지출은 교통 인프라, 주택 및 건설, 교육, 연구, 디지털화, 기후보호, 국제협력 등에 우선순위가 있으며 기후변화기금 및 디지털인프라 특별기금 등의 연방정부 특별기금을 투자에 활용
    - (교통) 독일 연방정부는 도로(84억유로), 철도(93억유로), 수로(14억유로)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상황 개선을 위한 자금(10억유로) 등 교통 인프라에 가장 많은 투자 재원을 배분
    - (교육·연구) 대학 내 연구 건물, 대규모 장비 및 고성능 컴퓨터 자금 지원(3억1675만유로), 우수대학육성전략(4억유로), 교육 및 강의 강화를 위한 미래 협약<sup>33)</sup>(19억4천유로) 등
    - (주택) 사회주택 보조금(10억유로), 기후 친화적 사회주택을 위한 프로그램(10억유로), 도시 개발 대책(11억유로) 등
    - (환경보호) 독일 기본법에 따르면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는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므로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출은 일부에 불과
      - 방사성 폐기물 관련 부지선정(7억2,900만유로), 방사성 폐기물 중간 저장소(4억3,100만유로)
    - (지역경제발전) “지역경제구조개선(GRW;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공동 과제의 일환으로 6억4,700만유로 투자

33) Zukunftsvertrag Studium und Lehre stärken(교육 및 강의 강화를 위한 미래 협약)은 2019년 연구와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학업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패키지를 승인